

한 국경제의 빛과 그림자

정 운 영



정운영 선생님은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MBC 100분 토론의 첫 진행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및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저 낮은 경제학을 위하여』, 『경제학을 위한 변명』, 『신세기 랍소디』 외 다수가 있다.

어떤 회고

여러분을 보니까 사람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웃거나 화내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조크의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수강생 여러분이 각 대학에서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이라는 데, 학교를 마치고 뒷날 혹시 신문사에 들어오면 입심 사나운 선배들이 한번쯤 이런 고약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기자(記者)와 정자(精子)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어리둥절할 여러분에게 내놓은 대답인즉 “사람될 확률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자조(自嘲) 뒤에는 물론 기자는 무엇보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경계가 스며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는 사람의 심경을 조금 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 오늘 제가 느끼는 세상은 아주 허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현실일 수도 있고, 저 개인적인 소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걱정한다면 누구보다도 이 자리의 여러분들이 킁킁 웃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대통령이나 하는 일인데, 저 양반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저는 세계화라는 이 시대의 조류가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며, 부시라는 사람이 벌이는 도박에 현기증이 납니다. 인류가 갈고 닦은 지혜가 고작 이 정도이고, 그 종착역이 기껏 이것인가 하는 내 나름의 좌절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회와 관련해서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신세기 랩소디』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가을의 미망」이라는 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병주의 단편 「아무도 모르는 가을」을 소재로 취한 글입니다.

실화로 여겨지는 이 소설의 즐거리는 이렇습니다. 일제 시대 조

선 지주의 딸이 8촌 오빠와 함께 일본 유학을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만석꾼 지주였고, 오빠는 그 집의 돈으로 공부를 합니다. 오빠는 여동생에게 사랑도 하고 인생도 알라고 권하는데 그녀는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환자를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동경여의전(東京女醫專)에 다니는 당대 최고의 인텔리 여성이 나환자 치료라니요? 오빠는 말렸지만 동생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돌연 아나키스트가 됩니다. 기존 체제의 압제에 항거한다는 명분으로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는 그런 무정부주의자 말입니다.

오빠는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고, 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뒤 결혼을 합니다. 아나키스트를 꿈꾸던 동생은 오빠의 결혼 사흘 뒤에 자살 같기도 한 심증을 남기고 갑자기 죽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빠도 죽고, 장례식에 참석한 이 소설 작가의 눈에 신기한 현상이 비칩니다. 오빠는 생전에 묘 자리를 정하고 주위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숲 사이로 바라보니 멀리 묘비가 하나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여동생의 무덤입니다. 그녀는 오빠를 사랑했지만 인습 때문에 괴로워했고, 오빠 역시 그 사랑을 눈치 챘지만 주위의 기대를 배반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의 결혼은 동생으로 하여금 이승에서의 모든 미련을 버리게 했습니다. 자녀들도 모르는 아버지와 고모의 사랑, 아무도 모르는 가을의 전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과 스토리이지만 인생 자체가 이런 스토리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과조든 무엇이든 감동이 자꾸 사라지는 이 시대의 삭막한 풍경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동경여의전 학생이 갑자기 아나키스트로 변신한 계기가 아주 궁금했습

니다. 그 대답이 소설에 나오는데 베라 피그네르(Vera Figner)에게 받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황제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하여 러시아의 바스티유로 불리는 쉘리셀부르크 요새의 독방에서 20년을 복역하고,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뒤에 출옥하는 여성 혁명가입니다. 조선 지주의 딸과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그들을 묶는 공통의 이해와 관심사가 무엇인지 얼른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글썄 의학은 사람의 병을 고치지만 사회의 병을 고치는 데는 폭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피그네르의 얘기는 그의 자전 소설 『러시아의 밤』을 읽어보십시오.

가을에 집착하는 이유요? 폐기 처분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제연배에게 가장 상징적인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 강연에의 초대를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저 같은 고물이 이제 첫걸음을 떼려는 풋풋한 신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 말이지요. 솔직히 여러분과의 ‘코드’ 조율이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당신보다 더 고물도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대에 뒤떨어진 신과 얘기를 누군가 한번쯤은 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요, 또 여러분이 신문을 만드는 학생들이라니 한번 만나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2003년 오늘을 얘기하기 전에 10년쯤 거슬러 올라갈까요? 공개 강연에 제 사적인 체험과 감상을 섞는 것을 조금만 양해하십시오. 이미 살아온 시대를 떼어놓고는 이 시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가 제게는 모멸과 배반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세칭 명문이라는 S대학과 K대학에서 오랜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는 40~50개의 학과에서 200~300명의 학생들이 제 강의

에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93년께 이른바 X세대가 나타나면서 강의실에서 학생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을 배워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고르면 쉽게 학점을 따느냐로 바뀌는 듯했습니다.

다시 10년을 거슬러 1983년 그때 저는 막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첫 경험이 어색한 것처럼 저의 첫 강의도 어색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공부한 분야와 시대 상황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처절했습니다. 캠퍼스는 최루탄 가스로 항상 매캐했고, 어느 5월에는 학생들과 젊은 근로자들의 분신(焚身)과 의문사가 무려 십여 번에 이르렀습니다. 확실히 1980년대는 분노의 시대였습니다. 그 치열했던 80년대가 90년대 들어 저렇게 변절한(?) 데에 우리는 그저 당황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10년을 더 올라가면 1973년인데 참 난감한 때였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대학원에 갔는데 그럭저럭 마치고 나니 이제 정말 진로를 정해야 했습니다. 취직할 데도 마땅치 않고, 공무원 시험 보기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들어간 것이 신문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문 기자라는 직업에는 지사(志士)적인 향수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의 독립지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것이지요. 기자가 되는 것은 현장에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공부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몸을 돌보러 갔습니다. 그때 건강이 아주 엉망이었는데 현장이고 뭐고 다 살아 있을 때의 얘기라면서 주위의 고마운 분들이 유학길을 하나 뚫어주었습니다. 김포 공항을 떠날 때 주머니에는 사업하는 친구가 찢어준 50달러 한 장이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외화였고, 생애 최초의 외화

사용은 알래스카 공항 매점에서 우편엽서를 산 것이었습니다.

몸이 나왔으면 즉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카펫 깔린 바닥과 말로만 들던 개가식 체제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제목만 입에 올렸다가도 경을 치는 그런 책들이 즐비하게 꽂혀 있는 거예요.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 도서관의 지식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론』을 읽고 리포트를 써오라는 숙제를 낸다면, 여러분은 그 책에 이빨을 부득부득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책은 ‘금서’였고, 금기를 깨뜨리는 재미로(?) 여러분 선배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동료들이, 후배들이 읽지 못하는 이런 책들을 부지런히 읽고 가자는 엉뚱한 결심으로 10년을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주류 경제학은 미국에 유학하는 친구들에게 맡기고, 나는 비주류 경제학을 책임지겠다는 장한(!) 뜻을 세운 거지요.

비주류 소속은 여러 모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주류 편입을 애달게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그런 구분 자체가 무미하게 느껴지는 날이 오는데, 가을의 미망을 되뇌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한번 쫓겨나고, 대학원에서 또 쫓겨나다시피 했고, 대학 교수가 되어 다시 쫓겨났습니다. 나는 이런 이력을 별로 감추지 않는데 거기도 오해가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은 여전히 철이 덜 든 위인이라는 사정을 미리 아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1970년대 : 좌절의 시대

제가 받은 강의 제목이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주축 측은 무난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런 말만 들으면 입

에서 생목이 올라옵니다. 제게 부탁하는 강의나 강연이 온통 그런 내용이라 전화 통화에서 벌써 제 대답이 심드렁해지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초청을 사양하는 형편입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속내를 알아차렸는지 주최 측이 제목은 그렇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유의 허용 범위가 얼마인지는 다시 묻지 않았고, 굳이 내용을 말하라면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한 세대를 — 30년을 — 바라보는 저의 감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곧 알아차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경제학 교과서의 경제와는 크게 다릅니다. 오히려 각 시대의 사회와 경제를 규정하는 키워드쯤 됩니다.

첫째로, 1970년대에 황금기가 종언을 고했습니다. 1945년부터 1973년까지, 종전에서 석유 파동까지를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전후(戰後)의 경제가 유례없는 발전을 했기 때문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케인즈의 수요 창출 정책이 주요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고, 순조로운 축적을 위해 노동·자본·정부가 평화 협약을 맺은 결과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황금기는 국제 원유 가격이 일거에 4배나 오르는 1973년의 석유 파동을 고비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에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전후의 호황이 종료된 좌절의 시대라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전후의 세계 질서를 호령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영광이 쇠퇴하는 것이지요. 제2차 대전이 끝난 뒤 사람들은 폭탄과 탱크 대신 무역을 통해서 잘사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하자니 당장 걸리는 것이 결

제 통화였습니다. 오늘은 달러도 쓰고 유로도 쓰지만 당시는 그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국내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에서 기름 한 통을 사고 달러를 내밀면 그들이 받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에 통용되는 세계 화폐를 만들자는 안들이 나왔고, 경제학자들은 방코르(bancor)나 유니타스(unitas)나 새 돈의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디어들이 채택되었다면 지금의 각국 화폐는 1방코르=2달러 혹은 1유니타스=50원 따위로 교환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칼에 날린 것이 미국 정부입니다. ‘세계 화폐는 무슨, 달러를 쓰면 되지’ 하고 밀고 나간 것입니다. 달러는 미국의 돈이지 세계의 돈이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힘, 즉 팩스 아메리카나의 주먹으로 그 반대를 눌렀습니다. 돈이란 요컨대 종이에 물감을 칠한 것입니다. 미국은 종이에 물감을 칠한 달러를 마구 찍어내 세계에 뿌렸습니다. 미국 국민은 그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쇼핑을 했고, 미국 정부는 그 달러로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달러를 세계 무역의 기축 통화로 사용한 결과 미국은 아무 수고도 없이 종이와 물감만으로 세계 경제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은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얘기에는 빵이 들었지만, 그러나 말짱 거짓말도 아닙니다. 당시 미국은 공업용을 제외한 전 세계 금괴의 73%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한 장에 금 한 덩이를 바꿔주겠다는 약속으로 달러 받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정확한 교환 비율은 금 1온스에 35달러였습니다. 요컨대 달러는 미국의 국내 화폐에 불과하지만 금으로 바꿔준다는 보장 아래 세계 화폐로 통

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자제했어야 합니다. 미국은 자신의 금고를 생각하면서 달러를 풀어야 했는데 그만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금괴로는 세계에 풀린 달러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미국은 달러 한 장에 금 반 덩이만 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미국의 약속을 믿고 정직하게 달러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쪽박을 찬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신뢰 추락으로 세계가 점점 달러를 기피하자 1971년 미국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아예 중단해버렸습니다. 달러는 완전히 그림 딱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당신의 달러로 미국 금덩이 대신 미국 물건을 사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지요. 옳은 말입니다. 세계로 풀려나간 달러가 가난한 볼리비아나 방글라데시에 있다면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품을 별로 쇼핑할 것이 없는 부자 나라 독일과 일본에 그 달러가 쌓여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이 사라고 내놓은 물건은 농산물과 서비스였습니다. 기후와 토지로 하느님의 축복을 잔뜩 받아서 그런지 미국 농업의 경쟁력은 세계 선두를 달립니다. 전후 자본주의의 종주국답게 금융·의약·법률·오락 등 각종 서비스 산업 역시 미국이 주도해 왔습니다. 세계 무역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던 공산품 대신 농산물과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출발했습니다. 달러의 옛 영광을 농산물과 서비스로 다시 찾으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이 바로 이 부비트랩에 걸린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영화의 횡포로부터 다소나마 우리 극장을 지키겠다는 스크린 쿼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

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팩스 아메리카나 쇠퇴에 대한 초조감에서 비롯된 미국의 반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셋째로, 국내의 개발 독재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의 발전 경험을 흔히 ‘압축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고도 성장’이란 표현을 썼는데, 고도 대신 압축을 씀으로써 한결 심층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성장만 압축된 것이 아니라, 근대화도 압축되고 민주화도 압축되었다는 말이지요. 확실히 압축 근대화나 압축 민주화는 정상적인 근대화와 민주화에 비해 여러 부작용을 노출합니다. 성장이 빠를 때는 그 부작용이 별것 아니게 느껴졌으나, 사회가 정상적 발전의 궤도에 올라설 때 그 부작용은 대단한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한발 늦더라도 압축 성장과 같은 편법을 피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반성도 있고, 압축 성장의 길을 달리더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반성도 있습니다.

1965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했으니, 그 30년 사이에 100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비록 명목 소득이기는 하지만 그 기록이 세계 경제사에 후무(後無)는 몰라도 전무(前無)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이면은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의 산재(産災) 사망률에다가 위암 사망률이 세계 1위, 폐암 사망률이 세계 2위,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 따위의 부끄러운 기록들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룬 풍요의 과실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따라다니는 브랜드의 하나가 개발독재입니다. 그 내용은 가발에서 유신까지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가발이

한때 우리 수출 상품의 3위에 올랐습니다. 국가의 ‘전략 산업’이었으니 가발 공장 여성 근로자에 대한 통제와 노동 착취는 극에 달했고, 그들의 항의를 박 정권은 첩권으로 눌렀습니다. 마침내 꽃다운 목숨을 던지며 죽음으로 맞선 그들의 투쟁이 학생과 지식인 등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국제 사회의 이목을 모았습니다. 감시와 탄압의 대상은 공장 근로자만이 아니라 작가·변호사·교수 등 광범한 지식인 계층을 포함했습니다. 개발 독재는 자연히 반체제 인사들을 만들어냈고,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유신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넷째로, 북한의 실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30대에 박사가 되고, 40대에 국회의원이 되고, 50대에 장관이 되고, 60대에 무엇이 되고, 이런 것이 나와 같은 촌놈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작살낸 것이 대학 학회 활동, 요즘 말로 하면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차마 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학회 선배들한테 들었고, 그러다가 뼈뺌하게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중에는 몸살 나게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6·25 전화(戰火) 뒤 남한은 미국이 원조해 준 밀가루로 허기를 면하고, 목화솜으로 추위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철저히 자력갱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조와 자력갱생은 그 어감의 차이가 벌써 우리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토지 국유화로 경작 면적이 팡대해 진 북한 농업에 트랙터가 꼭 필요했습니다. 돈도 없고 원조도 어려워서 꼭 한 대를 사왔습니다. 그것을 분해해서 도면을 그리고, 도면대로 부품을 만들어 다시 조립했습니다. 그렇게 트랙터 시제품을 만들어 시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령을 비롯한 당 간부와 관리들이 관람하는 아주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기사가 좌석에 앉아 전진 기어를 넣으니까 아빨싸 트랙터가 후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기사는 얼마나 놀라고, 참석자들은 또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때 수령 동지가 뚜벅뚜벅 다가와서 트랙터 기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걱정하지 마시오 동지, 뒤로 가면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오 하더라입니다. 장내는 감격으로 눈물바다가 되었겠지요.

이쪽은 원조 몰자로 허기를 달래는데, 저쪽은 그렇게 자립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그것이 의식화의 단초였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한 분노로 들맹이 몇 개 던지고 경찰서 몇 번 들락날락하다 보니 문득 운동권으로 찍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남북의 경제력은 역전되고, 마침내 1990년대 들어와 저쪽의 자립 경제는 기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980년대 : 분노의 시대

1980년대의 키워드는 첫째 극우로의 반전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총리의 정책이 그 표본입니다. 이들에 의해 사회 복지 정책들은 모조리 후퇴하고, 경쟁과 배제 위주의 세계화 토대가 구축됩니다. 여기서 극우로의 회귀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대가로 삼았느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1980년대 미국 경제는 엄청난 무역 적자로 빌빌거리는데, 일본은 미국 시장을 공략해서 날로 흑자 기록을 개선했습니다. 자연히 미국에서 반성의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비해 미국의 땅덩이가 좁으나, 자원이 없느냐, 자본이 적으나, 기술이 떨어지느냐, 머리가 모자라느냐... 하나도 뒤질 것이 없는데 왜 미국은 일본

상품에 시장을 내주고 변두리로 밀려나느냐? 정말 옳은 반성이고 옳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바로 이런 성찰입니다. 아무튼 미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들여 이에 대한 연구를 장려했고,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방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 성과를 다 모으면 도서실 하나는 너끈히 채울지 모릅니다.

그중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오른손으로 걸어서 오른손으로 주는데 미국은 오른손으로 걸어서 왼손으로 준다, 일본과 미국의 경쟁력의 차이는 여기서 비롯한다. 마치 무슨 성경 말씀처럼 들리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책이 여러 권 번역된 레스터 써로우(Lester Thurow) 교수가 필자입니다. 일례로 어느 회사 종업원이 작업 도중 몸을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치지요. 그럴 때 일본에서는 회사가 상해 당사자 퇴직 이후 가족의 생계나 자녀의 공부까지 책임집니다. 오른손 일을 오른손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연금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그 임무를 대신합니다. 오른손 일을 왼손이 대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본 근로자들은 회사 일을 내 일로 여기고 볼트 하나 죄는 데도 최선을 다하는데, 미국 근로자들은 이 회사 그만둬도 정부가 먹여준다는 생각으로 볼트보다 자신의 휴식을 먼저 챙긴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잘못되면 아내와 자식들이 다 굶는다고 생각하는 근로자의 작업 생산성과, 이 회사가 망하면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하는 근로자의 생산성 중에 어디가 높겠습니까?

종신 고용이니 연공 서열이니 하는 제도들이 요즘은 석기 시대의 유물 정도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는 그것이 바로 일본 경제의 저력이고 경쟁력이었습니다. 극우로의 반전 과정에 파괴되는 것은 복지 정책 같은 좌파의 가치만이 아니라 이렇

계 우파의 가치조차 포함됩니다. 나는 우리 사회에 왼손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전통적으로 오른손이 감당해 온 과제와 그 가치의 해체를 극히 위험스럽게 바라봅니다.

둘째로 지각한 ‘뉴 레프트’ 운동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 태어난 세계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연대를 고르라면 단연 1960년대입니다. 그때가 ‘청춘’이기도 했지만, 당시 세계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 더 큰 이유일 듯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약한 월남을 상대로 전쟁놀이를 할 때 세계의 젊은이들, 지식인들이 반전 데모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강자 편에 서서 못할 짓을 했지만 세계는 미국의 불의를 통렬히 비난했습니다. 그 뒤의 걸프, 코소보, 이라크 전쟁에서는 이런 소리를 듣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나는 1960년대가 이 세계의 양심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시대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1968년 세계 각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폭발한 기존 체제와 문명에 대한 항의를 흔히 뉴 레프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뉴 레프트 붐기에서 주목할 점은 현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그 체제에 돌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익이 누군가의 고통과 착취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참 멋진 배반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다니엘 콩방디(Daniel Cohn-Bendit), 독일의 루디 두취케(Rudi Dutschke) 등 당시 세계를 흔들었던 68혁명의 주역들은 지금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들을 패배자라고 비난하고 누구는 변절자라고 성토폰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을 변호하고 싶습니다. 혁명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혁명가도 시민이라는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베를린

자유대학에 들릴 기회가 있어 캠퍼스 구내 서점을 찾았더니 두께
케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의 저작과 전기 그리고 68혁명 관련 서적
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잊
지 않는 독자들이 있어 거기 그렇게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치열한 1960년대가 우리나라에는 한 20년쯤 늦게 왔습니다.
세계에 뉴 레프트의 봉화가 올랐을 때 국내는 반공 일변도의 개발
독재 시대였습니다. 레프트라는 말을 꺼냈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씩 바뀌었고, 독재에
항의하는 화염병이 한국의 시가지에도 나돌았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뭐니 뭐니 해도 '광주'였습니다. 광주는 우리에게 기왕의
금기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뒤집어 보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
니다. 그 뒤 미국이 절대가 아니고, 반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나는 우리의 '지각한'
뉴 레프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화염병은 극력 반대하지
만 불의에 대한 항거는 적극 찬성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화염병도
모르고 불의에 대한 저항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데에
나의 초조감이 있습니다.

셋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대학가를 달궜던 사회구성체 논쟁,
당시의 지칭대로 '사구체' 논쟁입니다. 사회 구성체는 일본 번역이고
원어의 정확한 번역은 사회 형성(social formation)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체성(identity)이 무엇이냐는 논쟁으로 다분히 유물사관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한 쪽은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을 내건
NL그룹이고, 다른 한 쪽은 민중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를 앞
세운 PD그룹이었습니다. 다같이 혁명을 외치면서도 그들은 끈질
긴 사상 투쟁을 벌였습니다. 전경이 여러분의 가방을 뒤지지 않고

수사 기관의 꼬니풀이 여러분의 뒤를 밟지 않는 현실, 즉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실제로 그 선배들의 간고한 투쟁의 소산입니다.

당시 강의를 하던 나는 학생들의 그 논쟁에 뛰어들지는 않았습
니다. 그러나 논쟁의 방법과 결말이 어떻게 될 지는 흥미롭게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NL은 남한 사회를 반(半)봉건적 식민지 사회로
보았고, 반면 PD는 국가 독점적 자본주의 사회로 보았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자연히 외세에 대한 저항이나 자본에 대한 저항이
냐는 수단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NL그룹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PD의 경우는 재벌 기업 앞에서 데모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챌겠지만 NL은
상당히 주체 사상으로 기울었고 PD에서는 레닌주의에 상당한 호
의를 보였지만,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진 뒤 양쪽 다 이론적 파산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학생회장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이 학생 식당
메뉴 개선이라는 말을 들으며 학생들이 너무 왜소해지는 것이 아
니냐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집권 세력에 다수 참여한 소위 386세대는 이런 분위기에
서 출현했습니다. 그들은 최루탄 가스에 눈물을 흘리며 거리에서
운동가를 같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민족이 뭐고, 사회가 뭐고, 자본
이 뭐고, 혁명이 뭐냐는 토론을 벌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 사람들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들이 분명히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우위가 현재의 삶과 도덕에서 인정받지 못
한다면, 과거의 알팍한 투쟁 경력을 출세의 도구로 삼았던 여러
선배들의 처신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넷째로, 한국 경제가 대망의 무역 흑자를 실현했다는 사실을 지

적하고 싶습니다. 1945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가 시작된 1997년까지 반세기 동안 우리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낸 것이 4번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른바 3저(三低) 호황 때입니다. 세계 유가가 떨어져 수입 원유 대금이 대폭 줄고, 국제 금리가 떨어져 외국 빚에 대한 이자가 줄고,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이 3저에 힘입어 흑자를 낸 것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어떤 한 해가 아니고 3년을 계속 흑자를 내니까 우리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고르바초프를 제주도로 초청해서 30억 달러를 빌려주고, 사회주의 퇴물 국가들을 원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땅 투기, 집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달러로 예컨대 철도를 놓고, 고속도로를 닦고, 항만 시설을 만들었더라면 오늘의 물류 대란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흑자가 오히려 재앙을 부른 셈입니다. 우리는 적자에 강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잘하지만, 조금만 흑자가 나도 정신을 못 차리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를 극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7년에 관리와 더불어 270 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종합주가지수가 이듬해 1,000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미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리가 끝난 뒤 우리 주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맷집은 강할지 모르나 평소 체력 관리를 잘못하는 선수 풀입니다. 그때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열창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 '현대그룹 와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1990년대 : 배반의 시대

1990년대의 첫째 특기 사항은 사회주의 붕괴일 것입니다. 다른

사회 현상처럼 여기도 변명이 뒤따릅니다. 이를테면 그 붕괴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이지 사회주의 자체의 붕괴는 아니라고 안타깝게 방어 논리를 펴는데 나는 여기에 반대입니다. 만약 어떤 성직자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흔히 그것은 그 성직자 개인의 잘못이지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성직자의 잘못을 가지고 교회에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뒤따릅니다. 성직자가 계속 잘못하는데도 책임이 없는 교회라면, 그저 하늘에 모셔놓기만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스탈린의 잘못이고 마오의 잘못이지 사회주의의 잘못은 아니라고 변명한다면, 그런 사회주의는 하늘에나 필요하지 땅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를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력 증대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가 만들어놓은 제도 중에서 자본주의를 이길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광활한 대지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를 보면 백성들은 항상 굶주렸습니다. 그것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잘못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마오의 혁명은 최초로 굶지 않고 사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민공사를 통해서 그 굶지 않는 방법을 제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민공사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공동’이 문제였습니다. 일례로 물 한 통을 부여야 하는 일에 반통만 붓고는 다른 사람들은 한 통을 다 붓겠지 하고 미뤄 버리는 것입니다. 땅 한 자를 파야 하는 일에 나는 반자만 파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뤄 버립니다.

말은 공동이었지만 행동은 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생산력이 오를 리 없지 않습니까?

생각다 못해 당국은 집 앞의 채마밭과 울타리는 개인 경작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한 통 대신 두 통을 붓고, 한 자 아닌 두 자를 파는 것입니다. 그 사유지 경작의 생산력은 공동 작업에 비해 몇 배나 높았습니다. 사유에의 집착이 이렇진대 자본주의 생산력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잘못 나누게 되고, 그래서 굶는 사람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생산력 일변도 발전의 함정입니다.

둘째로 세계화 문제입니다. 세계화를 달리 보면 배타성이 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라고들 하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계화는 철저히 배타적인 구조입니다. 예컨대 생산을 지배하는 것은 단 하나 생산비의 원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쌀의 생산비가 미국 쌀의 생산비보다 비싸다면, 한국은 쌀 농사를 포기하고 미국 쌀을 수입해야 합니다. 식량 안보니 농촌 안정이니 하는 것들은 말짱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벼를 몰아낸 한국의 논을 모두 물류 창고나 운전 연습장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미국이 쌀 값으로 쌀을 팔지는 의문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대학가 서점에 가면 ‘포스트’라는 제목이 붙은 책들이 즐비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마르크스주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산업사회 등등 포스트 시리즈가 만발했습니다. 서구 정신사의 맥락에서 보면 포스트 신드롬은 이성으로부터의 탈출이고, 이성은 신의 질서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따르다면서 가스실에서 500만을 죽이고, 합리성을 믿는다면서

사람의 머리 위에 원자탄을 터뜨리는 모더니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고발은 아주 시원합니다.

제작년 히로시마에 들렀을 때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미국의 변명대로 미국에 아주 무서운 폭탄이 있으니 어서 손들라고 할 요량이었다면 도시 외곽에 폭탄을 떨어뜨렸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자 한가운데 떨어뜨린 것은 결국 폭탄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원자탄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몰지각한 이성을 몰아내고 나서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나는 그것이 돈이고 시장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이 지배하고, 이성이 지배하던 세계를 이제 돈이 지배하려는 것이지요. 돈이 사회와 세계를 움직인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시장이 지배 원리로 등장하는 현실은 확실히 새롭습니다. 모더니즘 야유는 시원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이 새로운 신으로 시장을 추대하는 현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셋째로 1990년대 진정으로 분노할 것은 국제통화기금 관리를 부른 일입니다. 1만 달러 소득을 턱걸이한 지 이태만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더욱더 통탄할 것은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알짜배기 산업을 너무 싸고 너무 쉽게 외국에 넘긴 일입니다. 물론 한국 경제에 본때를 보이려던 외세의 입김도 있었지만, 개방을 앞세운 외세와의 영합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길이라고 믿었던 지도자의 과신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뒷날 이 시기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문초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 성찰의 시대로

전망은 점괘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망 대신 희망을 얘기하고 싶은데, 2000년대가 무엇보다 성찰의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 사항입니다. 점괘 수준의 전망에서 보자면 서구학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유목민 사회의 도래가 그럴 듯합니다. 유목민은 새로운 초지를 찾아 쉼 없이 움직이며,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공산은 아주 큼니다. 먼저 현대인에게 평생직장, 종신 고용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직장에서 내보내면 저 직장을 찾아 기웃거리는 것이 유목민 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으로 긴 여행에서 살아남는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씨름 시합이 열렸는데 한 선수가 상대를 메다뚝았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에 초등학생 정도의 동생이나 조카가 있었다면 그들에게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대강 이렇지 않을까요? ‘잘 봐, 저 선수가 왜 이겼지? 힘이 세거나 기술이 좋아서 이긴 거야. 그러니 너도 이기려면 힘을 기르거나 기술을 배워야 해’ 라고 말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시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20 : 80의 사회라고 들어보셨지요? 앞으로의 사회는 성공한 20명과 낙오한 80명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아예 2 : 98까지 잡습니다. 기술 진보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뤄질 때 2015년경에는 노동 인구의 2%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의 2명만 노동해도 현 수준의 생산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에서 밀려나는 나머지 98명은 어찌될 것인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이긴 사회, 이긴 사람만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진 사람이 나오니다. 문제는 이긴 사람 2명에 진 사람이 98명일 경우 사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산업혁명 뒤에 나온 영국의 구빈법(Poor Law)입니다. 구빈이라는 말과 달리 부랑아와 실업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그 제도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대열에서 낙오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며 어깨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못 따라 오겠으면 그만 뒤 하고 내버리는 것입니다. 근자에 유행하는 사회안전망이 혹시 그런 조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통곡할 어느 공과 대학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씨익 웃더라고요. 100명에서 2명이 아니라 1,000명에서 2명을 뽑아도 자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98명 중에 여러분의 부모가 계시고 여러분의 형님과 누나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건 너와 저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 제일의 덕목인 경쟁이 우리를 유목민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유목민 사회로 만든다면 그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바일 것입니다. 거기 필요한 것이 시대의 성찰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저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종로를 점령했던 포장마차들이 단속이 뜸한 틈을 타서 광화문까지 진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쓴 글이었습니다. 종로와 광화문이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궁합니다만, 그래도 정부 청사 코앞까지 오뎅 장사와 떡볶이 장사가 밀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우리가 만든 이 정권이 일등 공신인 우리를 단속할 수는 없다는 포장마차 주인들의 의식이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거리 미화보다 포장마차 서민의 생계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글을 썼던 것은 거리 미관을 해치는 포장마차 난립에 돌을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의 법과 질서가 우리가 만든 정권 따위의 명분으로 무너질 때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팔매가 날아들었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포장마차가 나라 무너뜨리는 것을 봤느냐는 요지의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기사를 읽고는 참말로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크게 잘못 보고 있다는 자괴지심(自愧之心)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습니다. 도대체 그런 자비와 관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의문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재벌 개혁이 있습니다. 재벌의 비리를 바로잡고 관행을 고치자는 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철딱서니 없는 사람들이 외국의 매뉴얼을 베껴다가 무슨 운동입네 하고 들이대는 짓은 큰 문제입니다. 일례로 소액 주주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그들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더욱이 그런 주장의 결과가 소액 주주의 이익이 아닌 제삼자의 — 외국 자본의 — 이익에 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브라질의 룰라(Luis Lula) 대통령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재야 시절에도 칼럼을 쓰고, 지난 12월 결선 투표를 앞두고도 썼으니까요. 룰라는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난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손님이 와서 집에 있는 의자를 전부 내놨는데도

의자가 모자랐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뒤 노동운동에 뛰어들고, 대통령 선거에 두 번 떨어졌다가 세 번째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속 이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한때 여러분의 선배들이 열심히 파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 학자들이 만들어 낸 개발 이론은 대체로 제국주의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이기 쉽다, 그러니 개도국 발전 이론은 개도국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인식으로 라틴 아메리카 학자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거기 앞장섰던 맹장의 하나가 엔리케 카르도수(Enrique Cardoso)라고 이번에 물러난 브라질 대통령이었습니다. 학자 시절 그는 진보 진영의 대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완전히 신자유주의자로 넘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변절한 것이지요.

틀라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의 업적을 평가한 외신들이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한때 브라질을 떠나겠다고 위협하던 외신들이 그만하면 안심이라고 박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표를 던졌던 서민과 빈민들은 등을 돌리는데 말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보의 깃발을 쳐든 쿠바의 카스트로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어렵기는 한가지이나 외세의 박수를 받을 만큼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다. 틀라가 그렇게 해서 브라질의 대외 평판을 높이는 것이 좋은지, 난관을 딛고 어렵던 시절의 뜻을 살려나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브라질의 그런 사정이 혹시 우리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제 관점이 잘못된지, 제게 팔매를 던지는 사람이 잘못된지 그것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